“추석 선물 30만원까지”…김영란법 완화에 유통가 ‘들썩’

백화점·대형마트, 20만~30만원대 선물세트 확대…축산 전년비 70%↑
선물 세트 예약 20만원대 매출증가 폭 71%…한우 선물세트 88% 급등

올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오르면서 2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세트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요 유통업계 역시 소비자 요구에 맞춰 고가 선물세트를 확대하고 나섰다.

5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백화점 등 관련 업계에서 가장 빠른 오는 8일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이에 맞춰 주요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차별화 상품 물량을 늘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기존 최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20만~30만원대 물량을 확대했다는 게 롯데백화점 광주점 측의 설명이다. 축산은 지난해 대비 70% 확대했고, 청과와 농산은 각각 25%, 20% 늘렸다.

유통가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자체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현대백화점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논의된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이 지난해 추석 전 같은 기간보다 37.8%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액대별로 보면 20만~30만원대 선물세트 매출 증가 폭이 71.3%로 가장 컸다.

30만원대 이상 선물 세트 매출도 51.3%나 증가했고, 10만~20만원대가 28.1%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만~30만원대 한우 선물세트 매출 신장률이 88.3%로 1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대 6일간 쉴 수 있게 된 것도 고가선물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유통가 분석이다.

현대백화점은 30만원대 이상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 매출도 큰 폭으로 늘었는데,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지면서 장기 여행을 떠나는 대신 고향에 고가의 선물을 보내려는 고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임시 공휴일 지정 방침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30만원대 이상 고가 한우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추석 전 같은 날과 비교해 183.2%나 뛰었다.

소매판매점도 비슷하다. 광주의 한 수산물 판매업체 관계자는 “주문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20만원대 굴비선물세트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가운데 고가의 선물군이 한우와 고급 수산물 정도로 좁혀지면서 광주축협도 매출증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또 올해 추석에는 휴가를 사용하면 최장 12일까지 쉴 수 있어 여행을 떠나는 대신 선물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전하는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상품에도 힘을 주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지난해 추석 때보다 20%가량 늘렸다.

특히 이 중 600개 품목에는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만 알면 간편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하기’ 기능을 운영한다.

신세계백화점은 SSG닷컴 신세계백화점몰을 통해 선보이는 선물세트를 지난해 추석 때보다 80%가량 늘렸다.

신세계백화점 모델이 올 추석 예약판매하는 굴비 선물센트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롯데백화점은 명절 가이드북에 온라인 전용 상품 페이지를 따로 만들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로 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비중을 70%까지 확대했다.

또 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특화 상품을 2000여종을 운영하고, 본점과 잠실점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상품을 바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별도 기획전도 마련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4일 광양농협에서 열린 ‘상호금융 예수금 7000억 원 달성탑’ 전달식에서 박종탁(왼쪽 네번째) 전남농협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광양농협, 상호금융 예수금 7000억원 달성탑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4일 광양농협에서 ‘상호금융 예수금 7000억 원 달성탑’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광양농협은 대·내외 어려운 금융여건 속에서도 작년 6월 상호금융예수금 6000억 원에 달성한 데 이어 13개월 만에 7000억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상호금융 예수금 달성탑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역 농·축협의 건전경영과 내실 성장을 유도하고 예수금 달성탑 수상 기회 확대를 통해 농·축협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시행 중인 제도다.

허순구 광양농협 조합장은 “예수금 7천억 원 달성을 위해 조합원과 고객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하다”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삼도농협, 상호금융 예수금 700억 달성탑 농협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5일 ‘삼도농협 상호금융 예수금 700억원 달성탑’ 전달식을 가졌다. 상호금융 달성탑은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여·수신 부문별 수여 기준에 부합하는 농·축협에 시상하는 제도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친정서 육아해도 전기요금 할인받는다

한전, 영아 실거주지 할인 혜택

한국전력은 5일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그간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했다.

그러나 육아 여건상 주민등록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 등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한전은 지난달 10일부터 ‘실거주지 신청’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복지할인 신청은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한전ON(online.kepco.co.kr), 한전 고객센터(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다. 다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실거주란에 체크하면 신청자와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고객센터에서 녹취하는 형식으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요금 할인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되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서만 할인신청이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

농어촌공사 신임 감사에 이광래 씨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임 상임감사로 이광래〈사진〉 전 국제자산신탁 상임감사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신임 상임감사는 목포 출신으로 목포상고와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제 4~5대 목포시의원과 제 7대 전라남도의원을 지냈으며, 국제자산신탁(현 우리자산신탁) 등에서 10년 이상 감사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임기는 오는 2025년 9월 5일까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선임직 감사 공개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5일 비상임 선임직 감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임직 감사는 진흥원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고,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해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2년으로 모집 인원은 한 명이다.

모집 공고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